숙취운전 단속 건수

텍스트, 라인, 도표, 그래프이(가) 표시된 사진

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

텍스트, 폰트, 스크린샷, 디자인이(가) 표시된 사진

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

**✅ 1. 전체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**

* 2014년부터 2020년까지 **전체 단속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**했습니다.
  + 예: 232,310건 → 81,495건 (약 65% 감소)
* 이후 소폭 반등이 있었지만, **코로나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음**.
* 이는 법령 강화, 음주 단속 방식 변화(예: 코로나로 인한 단속 감소),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.

**✅ 2. 숙취 운전 시간대의 단속 건수도 함께 감소**

* 숙취운전 추정 시간대인 **6–10시의 단속 건수도 함께 감소**하고 있음.
  + 2016년 22,781건 → 2021년 6,338건 → 2023년 12,268건
* 하지만 감소 폭은 전체 단속보다는 **상대적으로 완만**합니다.

**✅ 3. 비숙취 시간대와의 격차는 꾸준히 유지**

* **두 선 간의 절대적 차이는 매우 큼.**
* **하지만 전체 단속 건수가 줄어들면서 숙취운전 비율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요해짐.**
  + **즉, 전체 단속이 줄어든다고 해도 숙취운전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.**

**✅ 4. 2020–2021년 급감 후 반등**

* 전체 단속 건수와 숙취 단속 모두 20202023년 소폭 반등.
* 이 시기는 **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단속 회피**, **야간 활동 감소**, **단속 정책 변화**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.

**🔍 추가 분석 아이디어**

* 숙취운전이 전체 단속 건수에서 차지하는 \*\*비율 변화 (%)\*\*도 계산해보면 더 명확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어요.
* 예: 숙취단속건수 / 전체단속건수 \* 100 → 이 비율이 높아지면, **숙취운전에 대한 단속 비중이 늘고 있다**는 뜻.

**💡 결론 요약**

| **구분** | **요약** |
| --- | --- |
| **전체 단속** | 전반적으로 큰 폭의 감소 추세 |
| **숙취운전 단속** |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완만, 지속적인 감시 필요 |
| **정책 시사점** | 숙취운전은 줄지 않고 있어 **시간대별 단속 전략**이 필요함 |
| **코로나 영향** | 2020~2021년 단속 급감은 **외부 변수**의 대표 사례 |

텍스트, 라인, 도표, 그래프이(가) 표시된 사진

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

텍스트, 폰트, 화이트, 디자인이(가) 표시된 사진

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

**1. 야간 시간대(22–02시)의 단속 건수는 전반적으로 급격히 감소**

* 2014년: 약 **15만 건**
* 2020년: 약 **4.5만 건** (약 **70% 감소**)
* 이후 소폭 회복세 (2021~2023)
* 이 시간대는 전통적인 음주운전 적발 시간대 → **전반적인 단속 활동 감소 or 음주운전 감소 추세** 반영 가능

**2. 숙취운전 시간대(06–10시)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**

* 초반에는 1~2만 건 수준 유지
* 2020년부터 급감 → 6천여 건(2021년), 이후 다시 1만여 건 수준 회복
* **감소폭은 작지만, 비중은 상대적으로 상승**

**3. 두 시간대 간 격차 축소**

* 2014년에는 약 **136,000건**의 차이 → 2023년에는 약 **48,000건** 차이
*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음:
  + **야간 단속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**
  + **숙취운전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**

**4. 코로나19의 영향이 양 시간대 모두에 뚜렷함**

* 2020~2021년 급감 → 야간 활동 제한 및 단속 방식 축소가 큰 영향을 줌
* 숙취운전 시간대는 사회활동 감소와 함께 동반 하락

**🧭 시사점**

| **요약** | **설명** |
| --- | --- |
| **정책 변화 필요** | 전통적인 야간 음주운전 단속 외에도 **숙취 시간대에 집중한 단속 필요성** 증가 |
| **비율 기반 분석 필요** | 절대 수치가 아닌 **전체 단속 대비 숙취운전 비율** 분석도 병행해야 함 |
| **홍보 전략의 전환** | ‘심야 음주단속’보다 ‘숙취운전 예방’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필요 |
| **데이터 기반 단속 강화** | 시간대별 데이터 기반으로 단속 인력 배치 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음 |

**📌 추가 시각화 제안**

* **비율 비교 그래프**: 숙취운전 / 전체 단속 → 연도별 추이
* **누적 영역 차트**: 두 시간대의 상대적 구성 변화
* **사건수 대비 사고율 분석** (가능하다면) → 단속 건수 대비 사고 발생 건수